2013.02.12(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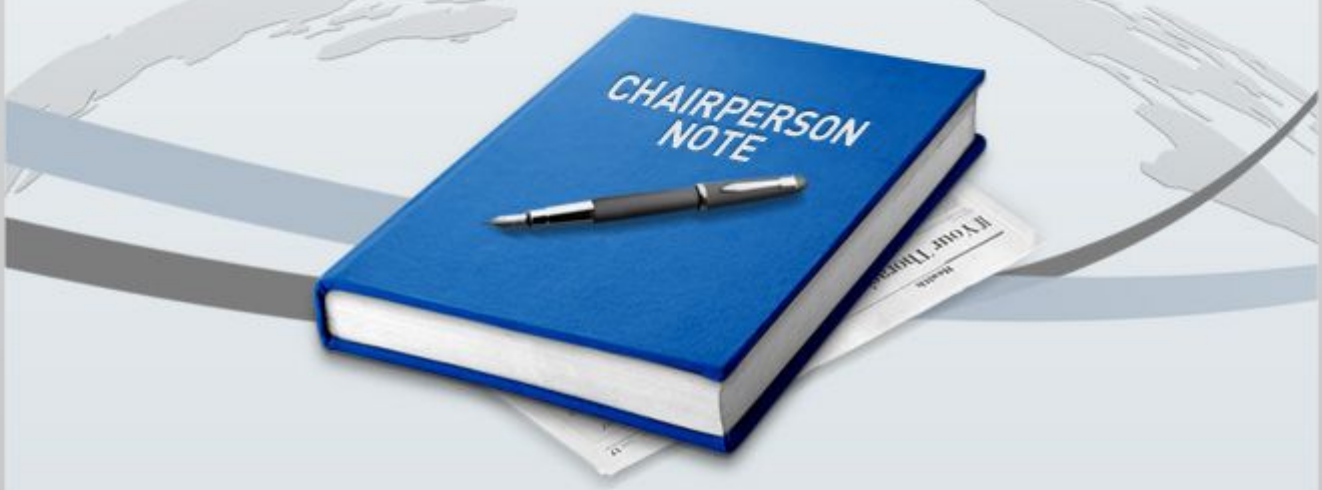
사 내 한
2013-06(437)

DREAM MAKE IT.

체어퍼슨노트

CHAIRPERSONNOTE

□ 경제 이슈
· 유로존 침체 속도 둔화
· 최근 국내 경기 흐름 소폭 개선
□ 경영 노트
·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사이언스
□ 사회 트렌드
· 레밀리터리블, 조회수 300만 건 돌파
· 명절 직후 왜 라면이 더 잘 팔릴까
□ 저널 브리프
· 2013년 7대 블루슈머
□ 洗心錄
· 창의성 증진, 먼 과거에도 귀기울여야 하는 이유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http://www.hri.co.kr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경제연구원

□ 유로존 침체 속도 둔화

■ **최근 유로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경기가 회복되고, 부도 위기가 축소되면서 유로존 경기회복세가 점진적으로 나타남**

- **제조업 경기** : 제조업 활동을 나타내는 유로존 복합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해 12월 47.2에서 올 1월 48.6으로 상승하여 유로존 침체 속도가 둔화
- **서비스업 경기** : 유로존 서비스업 PMI 역시 지난해 12월 47.8에서 올해 1월 48.6으로 상승하였고, 잠정치 48.3을 상회하는 실적 기록
- **부도 위기 축소** : 재정위기 진원지인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유럽 재정 부채 위기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양상

■ **최근 ECB는 연말 경제회복 전망에 따라 금리를 동결하고, 주요 경제지표들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로화 강세 및 고 실업률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연될 것으로 우려**

□ 최근 국내 경기흐름 소폭 개선

■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투자·수출 등 주요 실물지표가 개선되었으나,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소비가 다소 부진한 모습**

- **국내 수요** : 12월중 설비투자는 기계류·운송장비 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월대비 9.9% 증가하였고 건설투자는 건축공사 호조로 전월대비 5.8% 증가. 다만 소매판매는 소비심리 둔화로 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1.1% 감소
- **대외 거래** : 1월중 수출은 중국, 아세안 지역의 수출 개선과 조업일수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
- **고용** : 12월중 고용은 신규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27.7만 명 증가하였으나 증가폭은 3개월 연속 둔화

■ **향후 국내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세와 주요국의 지속적인 경기부양책 등으로 대외여건이 개선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

□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사이언스[1)]

■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의 보조적 위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 주춧돌로 주목받고 있고, 이에 따라 서비스 사이언스에 대한 관심 집중**

- 서비스 사이언스란 서비스 산업을 혁신시키기 위해 기술, 경영, 사회과학, 경제 등 여러 분야의 지식을 종합하려는 시도에서 탄생한 새로운 분야
- 서비스 이론과 현실의 차이, 고객의 기대 수준과 서비스 제공자 역량 간의 격차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의 산물
- 서비스 사이언스의 목적은 ① 무형성·비분리성·소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책 제시 ② 과학적 분석을 통한 서비스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 ③ 서비스 산업과 제조업을 위한 혁신 프레임의 개발

■ **서비스 사이언스의 경쟁력은 다양한 IT기술을 통해 확보할 수 있고, 최근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빅데이터 관리 기술**

- 빅데이터 이론은 데이터의 질(質)이 아니라 양(量)이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낸다는 관점
- 서비스 사이언스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경제에 조속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IT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

<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사이언스 사례>

	내 용
번역 서비스	• 구글과 IBM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번역 문서를 통계적으로 처리해 정형화된 번역 시스템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 • IBM은 캐나다 의회의 '수백만권'의 문서를 활용해 자동 번역시스템을 개발하였고, 구글은 '수억명'의 사용자들이 '수억건'의 문서 번역에 참여하는 크라우드소싱 시스템을 개발 • 승부는 수백만건의 자료 대 수억건의 자료, 즉 데이터의 양적 측면에서 압도적인 구글의 완승으로 종결
미국 대선	•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바마의 승리 요인을 분석하면서 빅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지적 • 오바마는 IT를 통해 수집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각 유권자들에게 맞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알고리즘 개발하여 활용하는 선거 전략을 수립 • 반면 롬니는 경합 지역에 집중하는 전통적인 선거 전략을 유지

1) '서비스 사이언스 시대, 빅데이터를 활용하라'(이코노미조선, 2013.02)와 '서비스 업그레이드, 과학이 기업을 살린다'(동아비즈니스리뷰, 2008.05)의 내용을 요약·정리함.

□ 레밀리터리블, 조회수 300만 건 돌파[2)]

■ **대한민국 공군의 홍보 동영상 '레밀리터리블'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지 엿새째인 11일 조회수 300만 건을 돌파**

- 이는 7개월간 조회 수 13억 건을 기록하며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전파 속도와 비슷한 수준임
- 이 동영상은 영화 '레미제라블'을 패러디한 동영상으로서, 장발장·자베르 등 영화의 등장 인물을 패러디해 공군의 제설작업 이야기로 풀어냄
- 누구에게나 익숙한 영화 '레미제라블'의 음악과 장면을 사용했고, 영어 자막을 달아 여러 나라 사람이 폭넓게 공감하게 함
- 제작비는 촬영장비 대여료와 장병들의 간식비 등을 합쳐 1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함

■ **강남스타일은 공개 6일 만에 유투브 조회 수 300만 건을 넘으며 알려지다 해외 주요 언론이 기사로 다루면서 순식간에 전세계로 퍼짐**

- '레밀리터리블' 역시 지난 7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인터넷판 등에 소개되면서 해외 언론에 등장하고 있음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일 '한국의 새로운 유튜브 센세이션'이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를 내보냄
-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 경감 역을 맡은 배우 러셀 크로가 이 영상을 리트윗한 것도 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한 급속도 전파에 한몫했음

□ 명절 직후 왜 라면이 더 잘 팔릴까[3)]

■ **먹거리가 풍부한 명절이 지난 직후 대형 마트의 라면 매출이 급증함**

- 롯데마트의 조사 결과, 용기면은 설 직후 68.7%, 봉지면은 40.7%, 우동은 43.1%, 즉석 탕류는 61.1%가량 신장

■ **소비자들이 많은 라면을 찾는 이유는 첫째, 며칠 동안 기름진 명절음식을 먹다보니 깔끔한 맛을 즐기고 싶어해 면류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임**

- 둘째 명절동안 고생한 주부들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명절 후에는 라면이나 즉석탕류, 카레 등 간편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이들이 증가하기 때문임

2) '레밀리터리블, 조회수 300만 건 돌파'(중앙일보, 2013.2.12)를 요약 정리함
3) '명절 직후 왜 라면이 더 잘 팔릴까?'(문화일보, 2013.2.12)를 요약 정리함

□ 2013년 7대 블루슈머[4)]

■ 통계청은 2013년 주목해야 할 7대 블루슈머 및 유망 성장분야를 선정
- '블루슈머'는 새로운 시장을 뜻하는 블루오션(Blue Ocean)과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경쟁이 없는 시장의 새로운 소비자를 지칭

① 기후 양극화 준비자(Consumers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 기후변화에 의한 한파 및 폭우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생활패턴이 변화
- (유망분야) 제습용품, 도심형아이젠, 차수판[5)], 해충방제사업

② 스포츠 적극 참여자(Amateurs turning professionals)
- 생활체육 동호인이 3년 만에 2.5배 상승하면서 관중에서 선수로 나서 직접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
- (유망분야) 각종 스포츠용품 전문 판매 및 대여업, 실내연습장 사업

③ 디지털 디톡스 이용자(Digitally addicted seeking digital detox)
- 스마트폰 이용자 증가로 디지털 중독의 폐해가 심각해지면서 인체 내 독소를 제거하는 디톡스요법을 디지털부문에도 도입하려는 시도 증가
- (유망분야) 스마트폰 사용제한 어플, 항균액세서리, 디지털기기 없는 여행상품

④ 은퇴한 부유층(Wealthy retired seniors)
-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가능한 은퇴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서비스업 성장
- (유망분야) 도심형 실버타운, 실버시터(노인전문케어서비스)

⑤ 글로벌 미식가(Global epicurists)
- 해외 여행객의 증가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접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중·일·서양식을 제외한 제3세계 음식점 수가 증가
- (유망분야) 동남아·아프리카·중동·유럽 음식점 및 관련 식자재 납품업

⑥ 유통단계 극복 소비자(Consumers jumping over supply chain)
- 복잡한 유통구조에 의한 가격 부담으로 유통단계를 뛰어넘는 소비행태 증가
- (유망분야) 온라인 직거래 보안서비스, 의료·육아·여행·통신 관련 생활협동조합

⑦ 페달족(Bicycle riders)
- 자전거 이용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관련 상품 및 파생 서비스가 성장
- (유망분야) 자전거 전문점 및 수리점, 보호용품 및 자전거 전용 보험

4) '블루슈머를 잡아라…올해 뜨는 아이템은?'(이데일리, 2013.01.27) 참조
5) 건축물 내부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판

□ 창의성 증진, 먼 과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

21세기 들어와 창의성(creativity)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그리고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떠올랐다. 한때 인적자본(human capital)이 중요시되면서 개인과 국민들의 학력을 높이는 것이 성공과 번영의 지름길인 것처럼 강조되었지만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한국에서 이미 그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창의성이 이를 대체할 거의 유일한 목표처럼 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학력이 그랬던 것처럼 창의성도 한 번 불고 뒤로 물러날 사회적인 유행으로 간주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공이나 번영과 관계없이 배움과 창의성은 인간과 언제나 함께했다. 배움과 창의성은 인간을 다른 생물체와 구별 짓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창의성 증진은 최소한 인간을 더욱 인간답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아쉬울 것 없는 투자다.

그러면 개인과 조직 그리고 국가를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 역시 결코 부족하지 않은 자천 타천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나섰고 그들이 만들어낸 훌륭한 관련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고 있다. 일반인들은 창의성을 증진시키는 일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도 전에 이들 가운데서 "창의적"으로 자신에 적합한 정보와 지식을 구분해내는 능력을 먼저 기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멀미나는 상황이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는 듯이 미국 UCLA대학교의 인류학 교수이면서 "총, 균 그리고 쇠(Guns, Germs and Steel)"라는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Jared Diamond)는 "The World Until Yesterday(어제까지의 세계)"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이 책은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유사 이전의 사회들이 비슷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동원한 방법들로부터도 배울 것이 적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그저 유인원과 친척지간이었던 미미한 존재로부터 불을 사용하고, 언어를 발명하고, 갖가지 도구를 만들고, 사회를 이룩한 과정에서 보여준 인류의 창의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창의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경험과 동료학자들이나 지인을 통해 얻은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그 원천 하나를 살짝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준다. 그는 현대 선진사회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남감과 아직도 문명과 거리를 두고 부족생활이나 채집과 수렵생활을 하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오지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대비시켰다. 선진사회의 어린이들은 마트나 장난감가게에서 파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장난감에 둘러싸여 있지만 오지의 아이들은 스스로 가지고 놀 장난감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차이는 오지의 아이들은 기후와 환경에 따라 그 범위가 차이가 났지만 평균적으로 현대 선진사회의 아이들보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원시적이고 조잡한 장난감보다 현대의 최첨단 기술이 동원된 장남감이 더 많은 기능과 재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장난감들은 어른들이 어린이들이 좋아하거나 두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조건을 갖추었지 어린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만든 것이 결코 아니다. 창의력이 아무 관계없는 것들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무엇을 만들어내는 행위의 배경에서 작용한다는 데 동의한다면 적어도 장남감과 관련해서는 원시부족의 아이들이 더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원시사회의 모든 것을 칭찬할 수 없다. 이들 사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점이 바로 현대사회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으로서 인류역사의 전환점을 만든 큰 발명과 개척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 먼 과거에 더 많았고 그 파급효과 또한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먼 과거는 보다 원천적인 창의성의 증거들로 차있는 셈이며 그만큼 뒤돌아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직장에서 퇴근한 뒤에 하는 일은
당신이 직장에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 지그 지글러 : 미국의 성공 철학자